
바이오 창업 활성화 방안(안)

2017. 3. 27.



관계부처 합동

목 차

I . 추진배경	1
II . 바이오 창업의 애로 요인	2
III . 목표 및 추진전략	4
IV . 추진전략	5
1. R&D · 사업화(자금) 지원 강화	5
2. 투자회수 방식 다양화	8
3. 바이오 인프라 구축 지원	10
4. 창업 친화적 환경(문화·제도) 조성	12
V . 향후계획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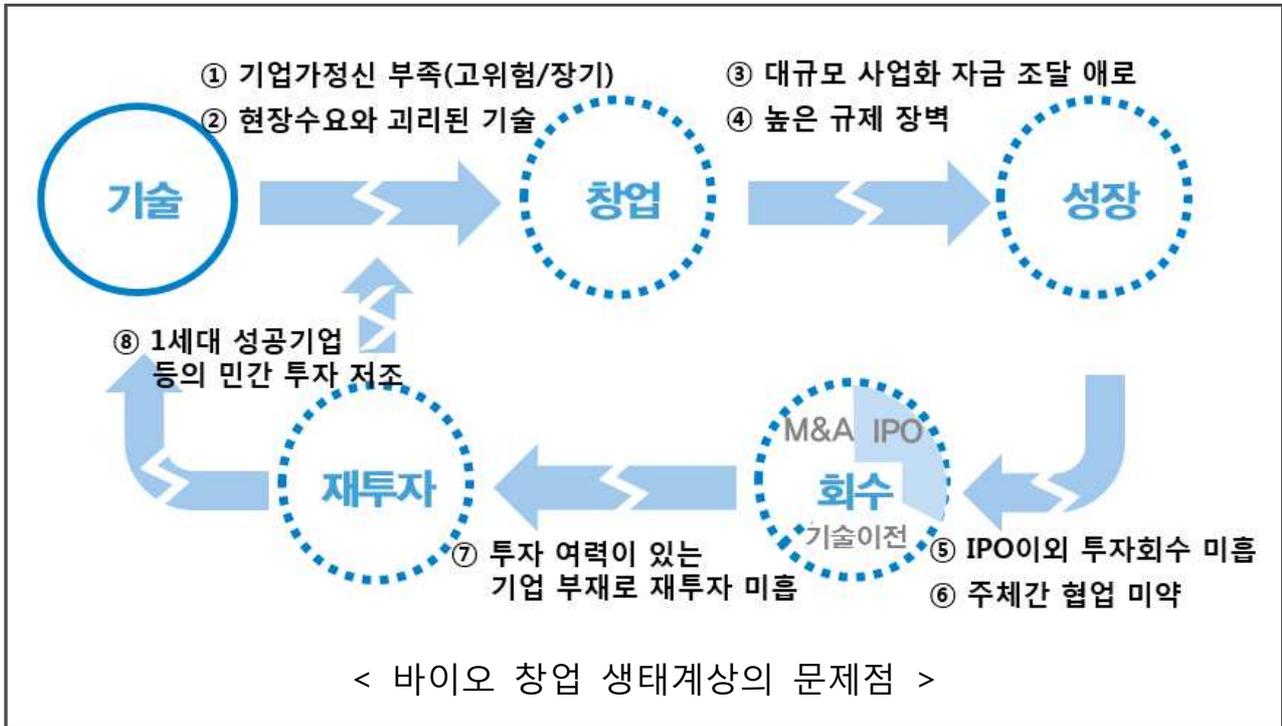
I

추진배경

- 식량, 질병 등 글로벌 현안 해결과 신산업 창출의 핵심동력으로 바이오가 각광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경제 주도권 경쟁이 심화
 - 미국의 'Lab to Market' 시책, EU의 바이오의약품 창업 우선정책 등 세계 각국이 바이오시장 우위 선점을 위한 노력을 경주
 - ※ OECD는 2030년경 IT에 버금가는 바이오경제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
- 국내에서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바이오분야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시작
 - 정부는 바이오 육성을 위해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특별위원회'*를 설치('16.3월)하고 현안 문제 해결 노력을 강화
 - * '17.3월 현재까지 총 5회의 회의를 개최, 18건의 정책을 심의·확정
 - 민간은 '15년 바이오의약품 무역흑자 최초 달성*, '00년 대비 임상시장 20배 성장('00, 33건 → '16, 675건) 등의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
 - * '15년 바이오의약품 수출액은 9,330억원이며 수입액은 8,728억원
- 바이오 창업의 경우, '10년 이후 매년 100여개 수준에서 머물다 최근 창업 본격화가 이루어지려는 상황인 만큼 바이오 창업 생태계 보강이 시급
 - 국내 바이오 창업 생태계는 창업에서 재투자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지 못해 투자회수 전에 실패하는 경우가 다수

⇒ [기술] → [창업] → [성장] → [투자회수] → [재투자]가 연계되는 **역동적인 바이오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제2의 바이오 창업 붐을 조성할 필요**

II 바이오 창업의 애로 요인



□ 고위험·장기·대규모투자로 인해 예비 창업자의 창업의지 저하

- 신약개발의 경우 후보물질 발굴 ~ 제품화까지 10~15년이 걸리고 비용도 1조 원 이상 소요, 성공확률은 0.01~2.3%로 매우 낮은 수준
- 벤처기업의 IPO 평균 소요기간은 11.9년('13)이나 바이오기업은 15.6년('10~'15)으로 4년 정도 추가 소요

□ R&D 성과 창출이 어렵고 사업화를 위한 대규모 자금 조달 애로

- 타 분야에 비해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이 낮고 사업화 관련 정부 R&D 투자**도 부족한 실정

* '14년 정부 R&D 과제당 기술료 수입(백만원) : ET(10.6) > IT(8.3) > ST(5.5) > CT(5.3) > BT(1.6)

** '14년 정부 R&D 사업화 투자 비중(%) : CT(14.8) > IT(6.3) > ET(4.7) > BT(3.0)

- 특히 바이오 분야 초기 창업기업의 경우 VC의 투자외면 등으로 자금 조달 애로는 더욱 심화*

* '15년 VC의 초기 벤처(3년 이하) 투자 비중 : 바이오 12.3%, 전체 산업 31.0%

□ 바이오 벤처의 투자회수 수단이 부족하여 기업성장의 한계 직면

- IPO중심의 획일적인 투자회수 방식으로 인해 민간의 투자 자금 조달이 어렵고* 다수의 창업기업이 IPO 도달前 투자회수에 실패

* '13년 민간/정부 R&D 투자비율(%) : 바이오(1.24), IT·SW(9.51), 소재·나노(9.56)

※ 미국 등 선진국은 IPO이외에 기술이전, M&A 등 투자회수 방식이 다양화 되어 성장-투자회수-재투자가 유기적으로 연계

□ 높은 수준의 규제와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 미비

- 인체 안전성 등 바이오 특성상 규제가 타 분야에 비해 까다롭고 국가별 인허가 제도도 서로 상이하여 시장 진출의 애로 가중

- 대규모 투자비용 대비 혁신기술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가 미흡* 하여 기술혁신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

* (예시) 선진국 대비 낮은 약가 등

□ 바이오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 부족

- 실험실 및 장비를 갖춘 창업 공간, 규제 서비스 등 바이오 창업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개발 및 지원 미흡

- 기존 창업지원 정책의 경우 장기·대규모 투자 등 바이오 분야에 대한 특수성 고려가 부족하여 정책지원 효과 미흡

Ⅲ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바이오 창업 활성화를 통한 바이오경제 시대 선도

목표

'기술-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바이오 선순환 생태계 고도화

R&D·사업화(자금) 지원 강화

- ▲ 병원 發 창업 생태계 조성
- ▲ 창업기업 지원 R&D 투자 확대
- ▲ 초기 창업기업 지원 재원 확충
- ▲ 분야별 글로벌 진출 지원

투자회수 방식 다양화

- ▲ 바이오 전문 VC 육성
- ▲ 바이오 M&A 및 상장 활성화
- ▲ 바이오 기술이전 촉진

추진전략

바이오 인프라 구축 지원

- ▲ 창업 공간 확충 및 연구시설 지원
- ▲ 전문보육조직 설치·운영
- ▲ 창업 지원인력 양성 강화

창업 친화적 환경(문화·제도) 조성

- ▲ 창업 붐 조성
- ▲ 창업 규제 개선 및 규제 서비스 강화
- ▲ 혁신 기술·제품 관련 제도 및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

1 R&D · 사업화(자금) 지원 강화

- 우수 인력 및 풍부한 연구자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이 가능한 병원 發 창업생태계 조성 본격 추진
 - 연구의사 양성, 의사-연구자 공동연구, 벤처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병원 R&D-창업 패키지지원사업*(114억원)' 신규 추진
 - * 의과학자 연구역량강화(21억원), MD-PhD 매칭(24억원), 벤처창업 지원(45억원), IT플랫폼 연계 헬스케어기술개발(24억원) 등
 - 창업공간 및 개방형 실험실 제공, 연구의사의 멘토링, 연구자원 활용 등 연구중심병원*의 인프라를 활용한 창업지원 강화
 - 연구중심병원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산·학·연·병 간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 R&D 비즈니스 모델 적극 개발
 - * '16.12월 기준, 연구중심병원에 46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16.1월~10월까지 1,342건의 기술자문·서비스 지원
- 현장수요 중심의 바이오 창업기업 지원 R&D 투자 확대
 - 혁신적 바이오신약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창업 3년 미만) 전용 R&D(20억원)* 신규 도입
 - * 시리즈 A 라운드 유치(30억원 이상), PCT 등록 또는 개별국 진입(3개국 이상)을 목표로 혁신기술 R&D 지원(1개 기업당 2년간 20억원 이내)

- 바이오 TIPS* 전문 운용사('16, 2개 → '17, 5개) 및 팀당 R&D 지원 금액('17, 5억원 → '18, 7억원) 확대

* (현황) '17.2월 현재 총 29개의 TIPS 운영사 중 바이오 특화형 운영사는 2개사이며, 총 218개 TIPS 창업팀 중 바이오 기업은 46개사(21.1%)

-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현장수요 중심의 R&D 기획 및 투자

- 신규 R&D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제약사·병원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하고 공동 투자하는 '민관 공동 추진 R&D*' 투자 확대

* (예시) 제약사의 수요를 바탕으로 정부가 산·학·연·병 협동 R&D를 지원하는 바이오신약 국가전략프로젝트(미래부, 복지부 등) 등

- 우수 신약후보물질 임상시험 진입 컨설팅(20억원), 의료기기 중개임상 센터* 확대('16, 7개 → '17, 10개) 등 중개·임상연구 지원 강화

* 의료기기 개발 전주기에 걸쳐 비임상·임상시험 및 인허가 획득 지원

□ 바이오 초기 창업기업 지원 재원 확충

- 초기 기업에 30% 이상 투자하는 1,135억원(750억원(중기청), 385억원(산업부)) 규모의 초기 기업 바이오 펀드 조성

- 글로벌제약·헬스케어펀드*(4,350억원) 등 기존에 조성된 바이오분야 펀드의 초기 창업기업 투자 지원 연계 강화

* 글로벌제약펀드(1,2호), 한국의료 글로벌진출펀드, 글로벌 헬스케어펀드 등 총 4개 펀드로 국내 보건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잔여재원 2,783억원)

○ 정부의 신규 바이오 펀드 조성 시 초기 창업기업에 대해서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도록 의무화 유도

- 초기 창업기업 투자 의무비율(예시: 30%) 설정 및 운영 방안 마련

※ 이스라엘 요즈마펀드는 창업 초기 첨단기술 벤처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독일의 ERP-EIF 공공모태펀드의 경우 85% 이상을 신생벤처기업에 투자

○ 창업기업과 국내외 투자자 간 연계를 통한 민간투자 유치 확대

- 바이오메디컬 포럼*, 인베스트 페어, 바이오코리아(4.12-4.14)**, 바이오·의료 특화지역(대구, 오송 등) 투자 IR행사 등 창업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포럼 및 투자설명회 개최

* 우수 벤처를 선발하여 TIPS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자 매칭 및 자금 지원(분기별)

** '16년 행사 결과, 총 1,130회 비즈니스 미팅 및 2,900억원 투자 상담

-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해외 전시회(Bio USA, Bio Europe 등, 4.1억원), 바이오벤처 오픈이노베이션 포럼, 코리아바이오플러스, 美 바이오 파트너링 등 참가 지원 강화

□ 제약, 의료기기 등 분야별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 (의약품) 신흥국 현지 법인 설립, 인허가·기술이전·마케팅 등 제약기업(연 10개 내외 선정)의 해외진출 지원

○ (의료기기) 중국·동남아를 중심으로 입지·노무 등 투자환경 분석, 산업단지 평가 등 현지 생산시설 설치 및 업계 공동진출 지원

○ (화장품) 중동·남미를 중심으로 국산화장품 상시 체험·판매의 場인 K-뷰티 문화체험관 확대 및 K-뷰티 팝업스토어 설치·운영

2

투자회수 방식 다양화

- 역동적인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바이오 전문 VC 육성
 - 대형제약사 등 바이오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육성을 위한 '바이오 CVC 육성 방안' 마련*
 - * (예시) CVC가 모기업 인프라를 활용해 벤처기업 지원할 경우 제도적 혜택 제공 등
 - ※ 한미투자벤처스 등 최근 국내 대형제약사들은 우수기술 확보 등을 위해 CVC 설립 추진 중
 - 민간 VC 주도 창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규제 완화* 등 'VC 주도 창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 (예시) 창투사 해외 투자 규제 완화 등
- 바이오분야 M&A 및 상장 활성화
 - 기업(자금출자)과 학·연(기술·인력)이 M&A가 용이한 '바이오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도록 Bio-SPC 사업 신규 추진
 - '17년에는 총 12개 과제를 선정하여 60억원(과제당 5억원 내외) 지원
 - * 미국의 경우 신약 전문 VC인 VPD가 실용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에 대해 SPC를 설립하고 투자와 경영을 지원하여 사업화 성공 유도
 - M&A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스톡 M&A 펀드* 활용 바이오 M&A 지원 강화 및 기술혁신형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 소규모 M&A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희망하는 창업 초기기업 등에 투자
 - **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5%이상인 중소기업을 세법상 기준가 130% 이상의 가액으로 인수하는 M&A

- 또한, M&A 매칭데이 등 바이오 M&A 희망기업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M&A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 창업 초기기업의 코넥스 시장 진입 활성화를 위한 코넥스 시장의 기술특례상장 요건* 정비

- * 기관투자자 지분보유 비율·보유기간, 지정기관투자자 요건 완화 등

- 기술이전 지원 R&D 강화, TLO 확대 등을 통한 바이오 기술이전 촉진

- 유망 기술, IP의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R&D 지원(98억원) 확대

- 인터비즈*에서 성사된 기술이전 중 유망기술을 선정, 추가 기술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기술검증·보완 R&D(18억원) 지원

- * 국내 제약·바이오 분야 최대 기술거래의 장으로, 연평균 25개의 기술이전 성사

- 바이오벤처, 대학, 연구소 등이 보유한 유망 IP를 수요 기업에 이전하고 이를 사업화하기 위한 R&D(80억원) 지원

- 병원 등의 기술이전 전담조직인 보건의료 TLO* 확대('16, 53개→'17, 60개), 기술의 사업성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 *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 병원·연구소 등의 기술이전 전담조직

- 연구중심병원 등이 개발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발굴·중개, 지식재산·제품화 컨설팅, 기술가치평가 등 지원(19억원) 강화

3

바이오 인프라 구축 지원

- (공간·장비 지원) 클러스터, 공공연구기관,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활용한 바이오 창업 공간 확충 및 연구시설·장비 지원
 - 송도, 판교, 오송*, 홍릉 등 바이오클러스터 중심으로 창업 공간 확충
 - * 렌탈랩(11개소) 및 벤처센터(49개소)를 통해 벤처기업에 창업 공간 제공
 - 창업선도대학 및 창업보육센터 신규선정 시 바이오 관련 공공 연구기관 및 연구중심병원 우대*
 - * (선도대학) 대학-연구중심병원 간 컨소시엄을 구성·참여 시 가점 부여 (보육센터) 의약 바이오 BI는 리모델링 비용 최대 4억원 지원 (일반 BI 3억원)
 - 바이오창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연구자원 활용 지원
 - 공공기관이 창업 공간·장비 구축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정부가 R&D를 지원하는 **Bio-Core facility사업**(30억원)* 신규 추진
 - * '17년에 공공기관 2개를 선정하여 30억원 지원
 - 기업연구자를 선정(기관 당 3~4명), 연구기관에서 창업 할 수 있도록 연구비 및 인력 지원하는 **바이오 기업연구자 창업지원사업 추진**(15억원)
 -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시험센터 구축 ('16~'19, 697억원) 및 임상시험용 신약의 위탁생산 추진
 -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바이오 창업 플랫폼 기능 강화
 - '100대 바이오 스타트업 발굴 프로젝트*'를 통해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바이오TIPS****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 지원 (충북센터)
 - * 충북연구원 등 지역 기관과 공동으로 의약·의료기기·헬스케어 분야 벤처 발굴
 - ** '17년부터 충북센터가 일반TIPS 운영사 및 바이오TIPS 협력기관으로 선정

- 스마트헬스케어 시제품의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지원 및 실증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제품 설계 고도화 (강원센터)
- (보육기능 강화) 지속적인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바이오 전문보육조직 설치·운영 강화
- 창업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코어센터* 구축(18) 및 농식품 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 확대
 - * 보건산업 특화 제품화 컨설팅·기술거래·투자·마케팅 등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
 - ** 기능성식품 등 농식품 분야 스타트업 대상, 3개소(전남, 경북, 강원) → 5개소(서울, 세종 추가)로 확대·운영('17.3월)
- (인력 양성 강화) 바이오 전문 VC, 사업화 인력, 규제인력 등 바이오 창업지원 인력 양성 강화
- 바이오 전문 금융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실시('23년까지 4000명 목표) 및 관련 자격인증제 도입
 - '17년 상반기 250여명 1단계 시범 교육 후, 하반기 이후 2·3단계 (심화교육, 자격제도, 네트워크 구축, 전담기관 자립) 추진
 - 중개·임상연구 인력, 보건산업 기술비즈니스 전문인력 등 바이오 사업화 촉진·연계를 위한 인력 양성 강화
 - 임상의과학 연구역량강화 지원·세계선도 의생명과학자 육성 등 임상의 연구지원(41억원) 및 연구중심병원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
 - 전문 기술중개, 기술사업화, 지식재산관리 등 보건의료 기술경영 (MOT)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연 2회, 1억원)

- 규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인증제*’ 운영 및 바이오의약품 전문인력 양성 교육** 강화

* 취업 희망자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 확대('16년 900명 → '17년 1,100명)

** 첨단 바이오의약품 허가 교육(5, 9월) 및 비임상(분포)시험 전문교육(6월), 유전자재조합 신약 개발 지원 심화 워크숍(10월)

4 창업 친화적 환경(문화, 제도) 조성

□ 바이오 창업 붐 조성

- 바이오 분야 창업 공모전 및 경진대회 개최 활성화

- (국내) 실용화 가능성이 높은 우수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보건·뷰티·의료기기 등 분야별 공모전 및 경진대회* 개최 확대

* BIO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복지부, 3~4월), 의료기기 제품화 아이디어 공모전(식약처, 7월), 뷰티 캠프 공모전(미래부(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3월) 등

- (해외) 글로벌 스타트업 경진대회*, 해외 현지 IR 행사** 개최 등에 바이오 창업팀 참가 지원(항공료, 체재비, 멘토링, 네트워킹 등) 강화

* 슬러시 도쿄 2017(3월), 글로벌 로드쇼(5월), 테크크런치 디스트럽트('17.하) 등

** 2017년 1차 해외 IR 행사는 5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개최

- 연구자, 대학원생 등 예비창업가 대상 실무창업 및 기업가정신 교육 확충

- 유망 창업팀 10개를 선정, 창업교육·선진국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후속 R&D(3년간 9억원)를 지원하는 Bio I-corps사업(20억원) 신규 추진

-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을 통해 창업기업에 대한 1세대 창업자, 투자자, 변리사 등의 멘토링 신규 지원(21억원)
- 창업지원 정부 R&D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대학원생 대상으로 창업 멘토링 및 실무창업교육 실시
- VC, 창업 보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 대상 창업 정보 및 비즈니스 컨설팅 제공*

* 연간 280명 교육(창업스쿨 240명, CEO 아카데미 40명)

□ 창업 규제 개선 및 분야별 규제 서비스 강화

- 바이오 창업 전주기의 현장규제 발굴·개선을 위한 ‘범부처 바이오 규제개선TF’ 구성·운영 추진

* 제4회 바이오특별위원회('17.1)에서 확정, 바이오특별위원회 산하에 설치 예정('17.3)

- 특히, 병원 중심의 연구·창업 시의 애로사항 개선을 위한 ‘병원 협의체’ 및 ‘병원-벤처 간 컨소시엄’ 구성·운영

-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분야별 맞춤형 규제서비스 제공

- (의료기기) 의료기기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위한 의료기기 통합 정보 BANK* 및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 운영

* 국내·외 개발동향, 인허가 동향 및 주요 수출국 인허가 절차·제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

** 개발-허가-평가-등재-수출에 이르는 실용화과정 전주기 지원

- (의약품) 첨단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신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7종
제·개정 및 '제품화 내비게이터'* 지정품목 확대

* 허가·심사자와의 정기적 소통을 통한 개발단계별 내비게이터 역할 수행으로 개발 전주기를 지원하는 사업

<'17년 제공 예정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연번	제목	일정
1	백신 임상평가 가이드라인	6월
2	정맥주사용 사람면역글로불린제제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가이드라인	12월
3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의 품질 및 안전성·유효성 평가 가이드라인	12월
4	세포치료제 주성분 명칭 기재 원칙 가이드라인	3월
5	생물의약품 제조방법 변경에 따른 비교동등성 평가 가이드라인(개정)	12월
6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비임상시험 관련 가이드라인(개정)	12월
7	백신, 혈액제제 전문가용 사용상의 주의사항 작성요령 해설서	6월

□ 혁신기술·제품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 및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

- 획기적 신약의 개발기간 단축을 위해 수시동반심사제도 등을 도입하는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 제정 추진

* 희귀질환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등에 사용하는 의약품 개발 촉진 및 제품화 지원

- 약가개선협의체*, 제약산업 중장기 전략기획단, 의료기기 제도개선 위원회 운영으로 혁신적 기술·제품에 대한 보상방안 발굴 및 개선

* 바이오시밀러·바이오베터 및 혁신 신약에 대한 약가 가산(10%p) 등 바이오의약품 약가 인상('16.10)

- 개선된 치료법·진단법 확인 등을 위한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의 통상진료비용 및 NGS 유전자 패널검사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

추진과제	주관	시행
1. R&D·사업화(자금) 지원 강화		
병원 R&D-창업 패키지지원사업 신규 추진	미래부	'17.3~
연구중심병원 활용 창업 지원	복지부	'17
바이오 창업기업 전용 R&D 신규 도입	산업부	'17
바이오 특화형 TIPS 프로그램 확대	중기청	'18
민관 공동 추진 R&D 투자 확대	미래부	'18
중개연구지원 강화	복지부	'17
초기 창업기업 지원 펀드 조성 및 투자	산업부 중기청	연중
글로벌제약·헬스케어 펀드 초기기업투자 연계	복지부	연중
바이오 신규 펀드 일정비율 이상 초기기업 투자 의무화	미래부 등	'17
바이오 투자 IR 및 창업콘서트 개최	중기청	'17
바이오 메디컬 포럼 개최	미래부	연중
인베스트페어·바이오코리아 활용 투자 설명회 개최	복지부	'17.4~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미래부 복지부	'17.6~
바이오 벤처 오픈이노베이션 포럼 등 개최	산업부	'17.下~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글로벌진출 지원	복지부	연중
2. 투자회수 방식 다양화		
바이오 CVC 육성 방안 마련	미래부 중기청	'17.下
VC 주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미래부 중기청	'17.下
바이오 SPC 설립 지원 신규 추진	미래부	'17.3~
기존 M&A 펀드를 통한 바이오 M&A 지원	중기청	'17
기술혁신형 M&A 제도 개선	중기청	'17
바이오 M&A 인식 개선 교육 실시	중기청	'17
코넥스 기술특례상장 요건정비	금융위	'17.下
인터비즈 연계 후속지원사업 추진	미래부	'17.5
유망 바이오 IP 지원사업 추진	산업부	'17
보건의료 TLO 확대 및 기술가치평가 등 지원 강화	복지부	'17

추진과제	주관	시행
3. 바이오 인프라 구축 지원		
오송, 홍릉 등 창업공간 설치 및 보육지원	복지부 미래부 등	'17
임상시험센터 구축 및 임상시험용 신약 위탁생산	복지부	'16~'19
창업선도대학·창업보육센터 바이오기업 우대	중기청	'17
Bio-Core facility 사업 신규 추진	미래부	'17.3~
바이오 기업연구자 창업지원사업	미래부	'17.3~
100대 바이오 스타트업 발굴 프로젝트(충북센터)	미래부	'17
스마트헬스케어 테스트베드 지원 및 제품 설계고도화(강원센터)	미래부	'17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코어센터 구축	복지부	'18
농식품 벤처 창업지원특화센터 확대	농식품부	'17
바이오 전문금융인력 교육 및 자격인증제 도입	미래부	'17.上
중개·임상연구 인력, 보건산업 기술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	복지부	'17
의약품 및 의료기기 규제전문가 양성 및 교육	식약처	'17.4~
4. 창업 친화적 환경(문화, 제도) 조성		
BIO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복지부	'17.3.~
의료기기 제품화 아이디어 공모전	식약처	'17.7~
뷰티캠프 공모전 개최	미래부	'17.3.~
경진대회 시 우수 바이오 창업팀 우대	중기청	'17.3.~
글로벌 스타트업 경진대회 참가 지원	중기청	연중
유망창업기업 해외 현지 IR 행사 개최	중기청	'17.5.~
Bio I-corps 사업 추진	미래부	'17.2.~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복지부	'17.下~
연구자·대학원생 대상 창업멘토링 및 창업교육 실시	미래부 등	연중
초기 창업기업 비즈니스 컨설팅 지원	산업부	'17.下
바이오 규제개선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미래부	'17.3
병원협의체 운영 및 병원-벤처간 컨소시엄 구성	미래부, 복지부	'17
의료기기 통합정보 BANK를 통한 1:1 맞춤형정보지원	식약처	연중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 운영	복지부	연중
첨단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제공 확대	식약처	연중
신약 제품화 내비게이터 지정품목 확대	식약처	연중
「획기적의약품및공중보건위기대응의약품개발촉진법」 제정 추진	식약처	'16.10~
혁신적 제품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방안 마련	복지부	연중
연구자주도 임상연구 통상진료비용 및 NGS 유전자 패널검사	복지부	'17.上
건강보험 적용	복지부	'17.上